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7(월) ~ 202.1.21(금)

제공일시 2022 01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7(월) ~ 2022.1.21(금)

제공일시 2022 01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에서 귀한몸 된 재활용 플라스틱

- 2025년까지 포장 용기의 재활용 비율 25%를 의무하는 등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로 상승**하는 중
-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등 식음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 최근에는 의류업체에서도 페PET병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음료업계에서는 의류 등 다른 산업군보다 음료업체들이 먼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수거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 요인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음**

(아시아경제, 2022. 1. 18) 박병희 기자
<https://www.asiae.co.kr/view.html?rid=1813451483>

2. 골드만 "중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대신 경제 성장 촉진할 것"

-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골드만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부문 투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며 "재생 에너지 투자 1위안당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부동산 투자의 영향력과 견줄 만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
-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각광받고 있음.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장비 제조업체와 비철금속 생산업체 등의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

(연합인포맥스, 2022. 1. 17) 정윤교 기자
<https://news.information.co.kr/news/article.html?idxno=434619>

3. 유로모니터 '올 10대 소비트렌드'

- 국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참았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보복소비)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할 것이란 전망**을 18일(현지시간) 제시
- 구체적으로 올해 10대 소비 트렌드로 △대안모색-정기구독서비스, 공동구매, 중고구매, 렌탈 **△녹색소비와 저탄소 생활방식** △중고거래 △디지털 시니아 구매력 △금융투자 애호가-가상화폐와 모바일 주식투자 **△일과 삶의 균형-대사퇴 시대**에 **노동자 일터 탈출 러시** △자기애 추구 경향-자기만족과 즉각적 행복 최우선 △전원생활 선호-코로나 봉쇄령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라 도시생활 매력 감소 △하이브리드형 사업모델 필요성 △메타버스 속 대인관계와 전자상거래 활발 등을 제시

(서울신문, 2022.1.19) 오달란 기자
<https://news.sen.com/article/view.php?rid=1813451483>

1. “ESG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 아닌 노동자 문제”

- 미국 비영리 단체인 저스트 캐피탈(Just Capital)이 **올해 ESG 경영에 있어서 프리랜서, 임시직 등 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을 16일 (현지시간) 내놓음. 2022년 실시한 ESG 지표를 기반으로 한 미국 기업 100대 순위에서 상승과 하락 등 큰 부침이 있었기 때문
- 일례로, 우버(Uber)가 각 이코노미* 근로자에 대한 우려로 100위에서 탈락한 반면, 페이팔(PayPal)은 노동자들의 가치분 소득을 높여 회복력과 생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로 6위에 오름. 이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투자 강화가 기업 회복력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스트 캐피탈이 뽑은 ESG 성과 우수 기업 100개사 가운데 10위권에 든 기업은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뱅크오브아메리카, 페이팔, 애플, 엔비디아, 버라이즌, 시스코 등
- *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컬음

(한스경제, 2022. 1. 17) 박지은 기자
<https://www.hanso.com/news/article.html?newsId=687029>

2. 폭스바겐-보쉬,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합의

-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올해 안에 보쉬와 합작사를 설립해, 유럽 내 배터리 업체에 배터리 생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기존 배터리 공장의 생산용량 확대와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현지시간) 밝힘. 폭스바겐의 배터리 담당 이사인 토마스 슈말은 로이터에 “향후 수년 동안 유럽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를 맞았다”면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기차를 위해 온전하고 현지화된 유럽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함
- 유럽배터리연합(EBA)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공장 건설 계획상 유럽 내 배터리 생산능력은 900기가와트시(GWh) 정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설립한 EBA는 배터리 자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9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을 16%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음.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1/3을 유럽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정한 바 있음**

(조선비즈, 2022. 1. 19) 이용성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1/19/20220119EBA.html?cid=main_socieconomy_news&origin=main_campaign

3. "연봉 100억 주겠다"...日유니클로 회장 파격 채용조건 내건 이유

-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경력직 채용 직원 연봉 상한을 최대 10억엔 (104억원)으로 높이기로 함.** 이는 단순 의류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IT기술과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급 인재 채용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
- 본 채용조건은 야나이 회장 본인 연봉(4억엔)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 경력직 채용자 평균 연봉보다 200배 많은 수준.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공급망 분야 정통 인재를 찾겠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

(머니투데이, 2022. 1. 17) 송지유 기자
<http://news.mt.co.kr/view.php?no=2022011711592688&page=1>

- 그런데, 러시아는 향후 EU의 CBAM 대상품목이 러시아의 주요 자원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중국은 CBAM이 WTO 협정과 국제 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 치라며 반발.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이와 같이 **무역국들이 CBAM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국제기후클럽을 통해 국가 간 협의와 대안 논의를 통해 CBAM 접근의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함.**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의 요한나 렌(Johanna Lehne) 수석 고문은 “CBAM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은 이 클럽을 무역 교역과들과 대화를 트는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며 “독일은 기후클럽에서 CBAM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